

광양만권·여수·대불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

전남도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 저탄소 공정혁신·디지털 전환 등 인재 정착 신산업공간 조성

전남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에 광양만권산단이 선정돼 여수·대불 등 전남의 3개 국가산단 모두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광양만권 산단은 철강·금속산업이 집적화된 국가 철강산업과 전남지역 경제 핵심 거점이다. 철강 수출액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과 생산설비 노후, 탄소 배출량 증가 등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미래형 융복합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지역특화산업 청년일자리사업 및 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통해 첨단·디지털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상으로 고급 인력의 지역 정착도 도울 계획이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스마트 공장 243개 확대, 생산액 1조6000억원 증가, 고용 인원 2200명 증가, 온실가스 감축 등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산단대개조) 대상지는 전국에 22개 지역으로 사·도별로 대부분 1~2개 지역이나 전남은 2020년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 2022년 대불국가산단(조선)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광양국가산단(철강)이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3개 국가산단 모두가 선정됐다.

광양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출촌제1산단, 해룡산단, 순천산단을 연계해 2024년부터 3년간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6822억원을 들여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혁신을 통해 디지털 저탄소 산단으로 전환하고, 정부 여건을 개선하며 지역 인재가 정착하는 신산업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저탄소 공정혁신을 위해 저탄소 제조 기반 컨설팅 지원, 수소 공급망 부품소재 산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신산업화를 위해 철강산업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공

고도화,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을 추진, 중소 철강사의 작업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밖에 정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가 정착하는 신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저감기술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미래형 융복합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지역특화산업 청년일자리사업 및 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통해 첨단·디지털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상으로 고급 인력의 지역 정착도 도울 계획이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산단대개조) 대상지는 전국에 22개 지역으로 사·도별로 대부분 1~2개 지역이나 전남은 2020년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 2022년 대불국가산단(조선)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광양국가산단(철강)이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3개 국가산단 모두가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와 광주 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무조건 반대는 그만”

모임·단체 잇단 입장 표명...광주시·전남도, 여론 향해 촉각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지역 여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안 공항으로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전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발전 계획을 준비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을 사랑하는 열린 생각 모임' 소속이라고 밝힌 지역민 10여명은 지난 19일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무안군의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민들 사이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를 전향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은 이례적이다. 무안군 삼향면 남악 입구에 '군 공항 절대 반대'라는 대형 광고탑을 세워놓고, 군 공항 이전 반대 광고를 전광판으로 끊임없이 틀어놓는 등 강경적 입장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군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면 전주기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처럼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지역 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여론에 현혹되지 않는 무안군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와 광주 시민사

회단체총연합은 20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 지역 지원 사업을 구체화해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적 발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국방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무안과 함평 등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군 공항 이전 논의와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기 노선 확보,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의 필요성도 홍보하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공항 통합·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만큼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공항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비엔날레’ 봄 조성 나선 광주시

강기정 시장, 전시관서 간부회의...홍보 전략 등 논의

광주시가 개막 초반 별다른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봄 조성을 위해 간부회의의 열고 홍보 전략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광주비엔날레 거시기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개막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비엔날레가 미술 축제를 넘어 광주와 세계가 만나는 문화외교의 사랑방이자 문화대사관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광주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엔날레 준비·운영에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부 회의에는 시청 실·국장뿐 아니라 비엔날레 재단, 국가별 파빌리온(특별관), 미술계, 교육청,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실·국장 주요 행사 연계, 외지 관람객 유치, 공직자들의 홍보 방안 등을 토의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전시 개막 이후 관심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흥행에 함께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명실상부한 세계 미술 도시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28년간 축적된 광주의 소중한 자산인 비엔날레를 더 키워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이름도 더 널리 퍼질 것"이라며 "이번 비엔날레, 9월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내년 제15회 비엔날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17일 기준으로 4만 5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4000여명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1일 개막한 순천만정원박람회는 개막 후 12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조만간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꽃 향기따라 ‘남도한바퀴’ 어때요?

전남도 여행상품 올 6700명 이용...무장애 등 28개 코스 운영

전남의 매력있는 관광 명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전남도 대표 여행상품인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봄 테마상품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남의 섬, 웰니스, 전통시장 등 비교우위 관광 자원을 상품화해 전남을 찾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도한바퀴는 올 들어서만 6700여 명이 이용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5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남도한바퀴' 봄 테마상품은 일반 여행코스 중 주중 15개, 주말 6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5일 시장 코스 5개, 제주·전남 1박 2일 코스 2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 관광버스를 매달 1회, 둘째 주 목요일 순천·보성지역 무장애 코스로 운행해 관광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동행하는 보호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주요 상품 구성은 보성 녹차해안도로, 강진 백운동정원, 구례 천은사, 담양 관방제림 등 힐링코

스와 유엔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을 신인 퍼플섬을 비롯해 목포 해상 케이블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봄 대표 관광지 21개소, 장성·영광 산책여행, 해남·완도 봄바람 여행, 화순·보성 풍경여행, 여수 베니스 여행, 영암·강진 돌레길 여행 등 전통 시장 5개, 진도와 완도를 둘러보는 제주페리 2개 코스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또 착한 가격과 함께 각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재미있는 설명과 안내를 해줘 관람객이 관광지 역사 및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전남 추천 관광지를 꼭 집어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바다, 섬, 문화, 치유 등 전남의 특화된 주제로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다시 찾는 여행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는 코로나19 이전 한 해 평균 2만 5000여 명이 이용한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여행상품이다. 관광객 이동 편의를 위해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튼튼타

고객케어



유용한 보험
보험료 할인부터
플리자 예약까지
편리한 보험 생활의 시작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점검



솔솔한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준법감시일 22-1981(브랜딩광고마포, 2022.9.27~2023.9.26) 삼성생명 홈페이지/모바일앱 '튼튼타 고객케어',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